

우정 칼럼

영화 폭스캐처를 기다리는 마음

이 종 탁*

올 하반기 개봉될 예정인 미국 영화 폭스캐처(Foxcatcher)가 우정인의 관심을 끈다. 이 영화는 거대 화학회사 듀폰의 상속자인 존 듀폰의 삶을 따라가는 전기 드라마다.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 활발한 사회기부를 하면서 한편으로 새를 연구해 조류학 책을 여러 권 쓰기도 한 학구파.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으로 가까운 사람을 살해하는 바람에 인생을 한순간에 망쳐버린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듀폰 역을 맡은 배우 스티브 카렐은 듀폰이 LA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금메달리스트인 데이비드 숄츠를 난데없이 총으로 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숨지는 과정을 담담하게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듀폰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땅에 레슬링 훈련시설을 만들어 숄츠를 비롯한 레슬링 선수들에게 무상 제공한 곳이 영화 제목인 폭스캐처 농장이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 눈 팔 수 없는 스토리 구조다. 그런데 우정인의 눈길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간다. 듀폰이 세계적 희귀우표를 많이 소장했던 전설의 우표수집가라는 사실이 영화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에 쏠려 있다.

듀폰은 1980년 우표 한 장을 구입하는데 93만 5천달러(10억 원) 지불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그가 산 우표는 1856년 영국령 기아나 1센트 적색우표. 지구상에 한 장 밖에 안 남은 희귀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우표 매매에 이렇게 큰돈이 오간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거

* 경향신문 출판국장, jtlee@kyunghyang.com

슬러 올라가면 이 우표가 1873년 기아나나의 한 마을 소년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꺾 값(6실링)에 불과했다. 그 후 우표수집상을 몇 차례 거쳐 1880년 유럽의 전설적 우표수집가 필립 폰 페라리의 손에 들어갈 때 750달러까지 올랐고, 40여년 뒤 페라리가 죽어 페라리 컬렉션이 경매에 나왔을 때 3만 6,000달러에 거래됐다. 이걸 듀폰이 종전 가격보다 30배 가량 비싸게 구매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더 비싼 우표가 나왔지만 당시로선 세계 최고가였던 기아나 적색우표는 현재 어디 있을까. 여러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정설은 듀폰이 감옥에 가면서 이 우표를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금고에 맡겨두었다는 것이다. 듀폰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만큼 공식 확인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믿고 있다. 문제는 듀폰이 2010년 12월 감옥에서 복역 중 숨을 거두었다는 데 있다. 처자식이 없던 듀폰은 숨지기 석달 전 작성한 유언장에서 자기 재산의 80%를 발렌틴 디미트로프라는 불가리아의 레슬링 선수와 그 가족에게 주겠노라고 했다. 듀폰이 디미트로프와 얼마나 각별한 관계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레슬링을 좋아해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그 마음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예상밖의 유언에 듀폰의 친척들이 나섰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에게 막대한 재산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다. 듀폰의 두 조카는 “삼촌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언장을 강제로 쓰게 했다” “그 유언장을 쓸 때 삼촌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마지막 유언장보다 더 앞서 작성된 유언장에도 조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발행된 미국의 우표전문잡지에 따르면 듀폰의 우표 컬렉션이 지난 3월 영국 런던 경매에 부쳐져 성황리에 끝났다고 한다. 듀폰의 포클랜드제도 컬렉션 중 가장 귀한 흐린 자홍색 페어 우표가 17% 수수료를 포함해 8만 8,000달러(약 1억 원)에, 30장 짜리 블록으로 된 우표는 25.4%의 수수료를 포함해 16만 1,590달러(약 1억 9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김장환 전 우취연합 회장은 전했다. 이들 우표는 듀폰의 재산을 물려받은 디미트로프가 내놓은 걸까. 듀폰이 디미트로프에게 준 재산 80% 안에 우표 컬렉션이 들어있기는 한 걸까. 은행 금고에 있다고 알려진 기아나 적색우표는 누구 소유가 된 걸까. 디미트로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간 걸까.

우정인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증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관련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 하나 없다. 영화라고 해서 상세히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 잡을 수 있는 비슷한 장면은 있지 않을까. 폭스캐처가 기다려지는 이유다.